



## 사회병리와 주체성회복

60대는 일제하에서 일어를 배우고 성도 빼앗기며 살았는데도 지금도 일제때가 좋았다고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도 일본책을 베끼거나 일본것을 주로 인용하고 술한잔 들어가면 무의식중에 일본군가나 그당시 일본 유행가를 불러제긴다.

일본의 체육회장이 지난번 동계 빙상대회때 우리 국기 대신 이북 국기를 두번씩이나 게양해서 사과를 하러 왔을때 이쪽에서 일본말을 「편의」상 썼다고 하는데 통역도 있는데 사과받는 그자리에서 일본어를 쓴다는것은 무의식중에 과거에 너희들에게 존중하고 성(姓)마저 빼앗겼으면서도 일본어를 할줄안다는것 하나로 옛날의 굴종을 잊어버린 순간이거나 그의 무의식속에 잠재된 피식민지 백성의 길들여진 주체성상실(主體性喪失)의 말로일 것이다. 지금 당장 일본의 「하네다」나 「나라따」공항에서 입국수속을 할때 일본어를 쓰면 왜의 관리가 담박에 '해라' 소리를 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당신과 내가 서로 존중할때라면 몰라도, 왜인들은 끝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망상을 내던지지 않고있는 마당에 우리를 결코 존중하지 않는다. 한다하는 60대이상은 지금도 가끔 일본에 간다.사업

도 사업이지만 일본식 무드속에 잠겨있다가 오는것이다. 마치 일본사람처럼 들어서 귀국하고 일인들이 한국을 보듯, 그런눈으로 우리 백성을 다스리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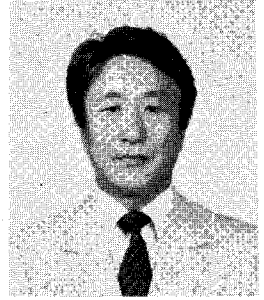
공격자와 동일시(同一視)하여 시어머니에게 당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되면 새 며느리 앞에서 행세하듯 하는 것이다.

50대는 미국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미국가서 살기를 원하고 미국사람의 눈으로 한국을보고 그런식으로 어설픈게 장사를하고 사업을 하려한다. 종교도 미국적이고 미국국적을 갖기를 원한다.

누런 얼굴을 하고 미국사람 되어 봐야 팔시받는 것은 피할 도리가 없는데도 말이다. 쌀장사하던 박이라는 사람의 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한국인이면서 미국식으로 미국에서 장사하려다가 망신한 사람의 예일것이다. WASP는 이런 것을 용납 않는 줄 알아야 할 것이다.

40대는 험쩍거리다가 자꾸 쓰러지고 30대는 건강한 정신적 국적을 많이 갖게 되었으나 이데올로기 병을 실컷 앓고 회복중인 사람도 꽤 많다.

20대이하를 이대로 끌고인도할 것인가. 사회병리의 연령별 특성의 일면을 그



문 홍 세 /  
문신경정신과 의원장  
이대의대외과교수

려본 것인데 세대차가 난다는것도 사실이고 웃대는 아랫대를 못마땅히 여기고 아랫대는 웃대의 그런 모습을 영 탐탁치 않게 보는 문제가 생겨있는 것이다.

웃대는 나름대로 고생해서 보리고개를 극복했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에 길들여지고 인생의 기쁜 의미마저 갖고 있는데 반해서 아랫대들의 구호나 삿대질이 영 마음에 안들고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열심히 공부나하고 일을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애들이 햄버거에 입맛땡겨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배고파 보지 못해서 저 모양이라면서 화가난다.

아랫대들은 공평하지못한 웃대들에게 화가나고 무자비하게 「땡쓸이」하는것에 분노하고 웃대들에게 애국심이 있는지 반문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에 분노한다.

문제는 사대(事大)나 하고 손바닥을 비벼대며 살아남았던 부모덕한 어른들의 주체성 상실을 고발하는 젊은이들의 어설피른 이데올로기적 반발이다.

어느쪽이건 현실을 다룸에 한계가있고 어떻게 보면 패권적이고 자기들만이 옳다는 일시적 교통두절 상태이다. '너희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말로는 안되고 그냥 서로가 때려주고 불지르는 수

밖에 없다는 식이다.

통(通)한다는것은 자기를 깨닫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를 하고 공감(共感)하는 것이다.

남과 북도 통해야 하고 동과 서도 통해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도 통해야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와 고집과 아집(我執)이 있어 말로는 통해야 한다 하면서 자기를 고집한다. 노소(老少)도 통해야 하는데 노소동락(老少同樂)이 그리 쉽지 않다. 가진자는 베풀고 못가진 자는 노력해야 접근한다. 종교끼리도 통해야 하는데 같은 말을 하면서(사랑=자비) 꼭 자기식으로 해야만 옳다고 우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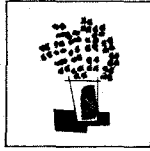
나라가 망하면서 유교의 병폐만 남겨졌다. 군국주의와 기계문명에 압도되면서 훌륭한 정신문화도 함께 쇠퇴해왔다.

사람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물질을 동경하면서 엽전근성이 생기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다. 서양의 퇴폐문화를 서슴없이 받아들이고 자기상실(自己喪失)로 가고 있다.

서양에서도 인간상실을 개탄하고 있는 판에 무엇을 얻으려고 드는지 생각들은 자주 서양이나 일본으로만 향한다.

60년대에 영국에 정신과를 공부하러 간적이 있었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인

# 의학 이제이



간구제에 대해 젊은 동양인 정신과의사로부터 무엇인가 해답을 구하려 질문을 던진다.

그때 ‘아! 나자신을 모르는구나’ 깨달으면서 허둥지둥,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길 -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하는 유행가가 떠올라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를 칠판에 써놓고 한두마디 설명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그 반응들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 이후 몇군데서 초대까지 받았고 밑천이 없는데 그들의 기대에 응하려니 비후스택이 없혀 고생까지 하였던 생각이 떠오른다. 자꾸만 서양공부나 하고 그들의 앵무새 노릇이나 지껄려봤자 맨날 중·고등학생 내지 대학생 수준이고 기껏해서 박사학위 받아봤자 인간학에서는 별 점수가 없다. 그들은 인간을 동양에서 배우려고 불교다 유교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판에 우리의 체질속에 박혀있는 우리의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여겨진다.

요즈음 세계 정신의학계의 관심은 통합(Integration)을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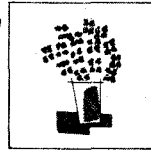
정신과 신체를 나누고 몸과 몸은 쪼개고 화학과 생리를 나누고 관찰자와 관찰한 대상을 나누고 등등 수없이 나누다보

니 뻔한것을 “자기”가 다른말로 표현했다. 정도밖엔 안되는 결과인것을 알게되면서 이것과 저것은 이런 점에서 만나고 저뜻의 뒷면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동양에서는 음양(陰陽)과 변화의 이치(周易)속에서 파악하고있는 점들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예로써 男과 女하면 생식기의 모양이나 홀몬분비의 차이가 있고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인간으로서 같고 의존성과 독립성, 분노나 화의 밖으로의 발산이나 안으로 삼키거나에서 같고 사랑받고싶고 인정받고 싶은데서는 똑같은 것이다.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다르냐에서 언어적표현을 한다. 비언어적으로 통한다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떻게 표현했던 통한다에서는 같을 수 밖에 없다.

가난했던것도 동서양(東西洋)을 막론하고 같았었고 독일도 비스마르크의 “감자”이전에는 처참하게 굶었다. 아일랜드의 울드랭사인은 배고파서 자기 나라에서 못살고 미국으로 이민갈때 고국에 남기고 떠나가는 노래이다. 일본도 늘 배고파서 우리 해안에서 노략질 하던 해적들이다. 돋보기안경과 빠드렁니는 아직도 만화에 나오는 일본사람이다.

# 의학 에세이



불과 몇십년이 지난 지금 대포와 총의 위력 외에는 가진게 없다. 토인비는 유태교, 기독교, 국가주의, 그다음 따라오는 공산주의가 시간적으로 배열해본 서양의 정신 역사라고 갈파하고 그에 대비해서 동양은 나와 자연이 일치가되는 순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

무기라는것이 인간을 해한다하여 화약을 사용하지 않았던 인간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바탕을 가진 우리이다.

인간관계에서의 여러문제들은 공자(孔子)로부터 배우고 인간의 심오한 내면세계는 불교로부터 배우면 현대정신의학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Saul이라는 분석의(分析醫)는 그의 나이 70에 '두통으로부터 살인까지 이르는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의 잘잘못으로 비롯된다' 하였고 그것을 부모들이 만나서 얘기를 임신하고 태교로부터 해서 6세까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하고 후로이드의 이론도 개념적인 것이긴 하나 이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인간문제는 이제 우리가 서양이나 외국에서만 배울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살아온 우리속의 귀중한 체험과 관습을 새롭게 깨우쳐서 현재화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우리를 서양사람들은 와서 보고 배우게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50년대에 "젓대신 우유"라해서 한때 배운 여성들이 따랐고 60년대에 와서 "우유가 아니라 모유를" 하니까 또 그러려니했다.

지금 교회에서 설교의 많은 부분에서 공자님 말씀을 인용하고있는것 또한 사실이고 이리저리 않고는 좋은 설교가 되지 않고 있음도 사실이다. 심지어 샤마니즘까지 포용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묘하게 서양식 무당의 몇가지 아류도 횡행하면서 치료 행위도 있는 모양인데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해도 그런 요구에 응하다 보면 결국 기독교가 한국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나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한국적 기독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선다.

여러말 길게된것은 세대(世代)를 넘어서 우리의 주체성(主體性)을 회복해서 인간적, 인본주의적 화통(和通)속에 각각의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 보고저 한 것이다. †